특수교육논총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23, Vol. 39, No. 4, pp.37-72
https://doi.org/10.31863/JSE.2023.11.39.4.37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인지·심리 특성 분석*

차 세 진**(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탈된 성 행동을 개인의 삶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성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인지·심리 특성을 분석하여 근거기반의 중재로서 성교육, 인지행동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3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반복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20대 여성, 3명의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출산한 30대 여성, 배우자의 내연녀와 옆집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등이다. 인터뷰는 1인당 3~4회씩, 1회당 42~87분 진행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전체 녹음 및 전사한 후, 연구자가 유의미한 범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인지 특성은 성 인지적 특성과 관계 인지적 특성으로 구분되었다. 성 인지적 특성은 '일탈된 성 행동 경험에 근거한 제한적 성 지식',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 태도와 고정관념', '섹슈얼리티의 추구와 일탈된 성 행동 경계에서의 갈등'으로 도출되었다. 관계인지적 특성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정의 어려움', '타인 의존형 문제해결'로 도출되었다. 심리 특성은 '사회적 통념과는 차이가 있는 가치기준', '타인과의 소통욕구와 사회적지지', '나와 타인에게 공감 없는 무덤덤함과 우울감'으로 도출하였다. **결론:** 평생교육을 통한 생애주기별 성교육 제공,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장기간의 사회·정서적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적장애, 장애인, 여성, 일탈된 성 행동, 인지, 심리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0S1A5B5A17089190).
** 제 1저자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탈된 성 행동은 사회과학 분야의 범죄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성범죄 또는 성비행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은숙, 이세정, 이호준, 2018). 유사하게 성적 일탈(sexual deviance), 성 일탈행동, 성 도착(paraphilia)등의 용어로 사용되며, '부적절한 대상이나 목표에 대해 강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성적 상상이나 행위를 반복하여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이수정, 이은진, 2017; 장은영, 2014; Lindsay, 2015). 성범죄를 곧 일탈된 성 행동으로 본다면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성범죄자의 19%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결과는(신경백 외, 2012) 지적장애인에게도 일탈된 성 행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일탈된 성 행동을 법에 저촉되는 성범죄나 성도착의 의미보다는 '성에 대한 사회의 인습이나 기타 규범, 문화적 가치 및 신념을 위반한 행위'(고은숙 외, 2018)로서, 심신의 건강 및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성 행동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 행동 경험은 단순 범죄적 행위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탈의를 하거나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의 성 행동문제나 부적절한 이성 교제(김혜원, 이해경, 구본권, 2003; 박상희, 2015)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의 일탈된 성 행동을 보다 폭넓게 정의하는 것은 비장애인의 일탈된 성 행동의 원인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애 유무를 떠나 일탈된 성 행동은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있는 상태이다. 비장애인은 성에 대해서만 인지적 왜곡이 있는 반면, 지적장애인은 인지·적응행동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전반적인 지식 등에도 인지 왜곡을 가진다는 차이는 있다(이수정 외, 2015; 이수정, 이은진, 2017). 즉, 지적장애인의 인지 왜곡은 성범죄나 성도착과 같은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랜 삶의 전반에 있어 일상생활 곳곳에 누적되어 있다가 성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성 행동문제나 경계 침범 등도 그 원인은 인지 왜곡으로 동일하므로 일탈된 성 행동을 더 넓게 정의한 것이며, 동시에 중재의 범위 또한 넓히고자 함이다.

지적장애인에게 인지 왜곡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장애인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제공되지 못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성교육은 성을 매개로 한 관계에서 잠재적인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한 정보 및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해야 하며, 지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글, 사진,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Mencap, 2002). 지적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지원적 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친 지원을 제공하여(McCarthy, 2014; Stinson, Christian, & Dotson, 2002), 사회·정서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Burns, 2000) 익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장애학생이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을 수행해야 함이 명시되기 전까지 장애학생을 위한 공식적인 성교육은 부재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학생 성교육의 대표적 어려움으로는 성교육 내용, 성교육 자료, 성교육 프로그램의 부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김영숙, 2021). 지적장애인은 신체·정서적 성숙이 비장애인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부합하는 성 지식과 사회적 관습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여 일탈된 성 행동이 나타난다는 가성일탈가설(counterfeit deviance hypothesis)의 관점에서 본다면(이수정, 장은영, 양재원, 2015; Hingsburger, Griffiths, & Quinsey, 1991),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성교육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지적장애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일탈된 성 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사회참여 저하 및 삶의 질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생애 전반에 걸쳐 포괄적 관점의 형식·비형식적 관점의 성교육 및 행동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예방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원과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 '일탈된 성 행동 실태',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이 조사되고, 요인 간의 상호작용 영향 등의 복합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일탈된 성 행동에 대한 지적장애인만의 독특한 인지·심리적 특징은 직접적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근거기반의 지원·중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및 자료조사조차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적장애인의 일탈된 성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김강률, 김인향, 안동현, 2020) 공식적 통계 부족으로 실태 파악의 어려우며(이수정 외, 2015), 연구 참여자로서의 지적장애인이 표현하는 정보를 해석하는 연구방법의 한계(김진우, 2008) 등으로 인해 관련 분야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

지적장애인 일탈된 성 행동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성범죄'와 '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제한점도 있다. 이로 인해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일탈된 성 행동에 대한 연구는 적으며, 지적장애 여성의 일탈된 성 행동은 범죄로서 인정될 만큼 극단적인 형태가 아닌 이상, 가·피해자 모두 집중적 보호와 통제를 후속 조치로 취하는 현실은(Lindsay, 2015) 조사와 연구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지적장애인 여성의 성과 관련된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에 집중하거나(김지혜, 김희주, 2017; 문현주, 2015), 취약한 환경과 성 비행 경험의 과정을 살펴보는(권애리, 박원희, 2011)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지적장애인의 성 행동을 범죄가 아닌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임해영(2016)과 같은 연구는 매우 적다.

선행연구들이 각 연구의 관점에 따라 지적장애 여성의 성에 대해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결과를 내어놓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환경적으로는 가정의 보살핌이 부족하거나 가족이 첫 학대 경험의 배경이 되었고, 친밀함에 대한 욕구에 반해 건강한 이성관계에 대한 지식 및 표현 기술 부족으로 인해 부정적 성 경험을 반복하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성인식과 개인적인 욕구 사이에서 끝

없는 갈등을 지속하는 등의 결과가 대표적이다(권애리, 박원희, 2011; 김지혜, 김희주, 2017; 임해영, 2016). 이상의 특징은 장애 유무를 떠나 남성과 여성의 신체 및 생물학적 차이는 물론 사회문화적 통념과 기대 행동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지적장애 여성은 '인지', '장애', '여성'이라는 다중적 차별(multiple discrimination) 상태(이동영, 2009)로서 그 특수성이 성과 관련된 경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탈된 성 행동과 관련된 인지·심리 분석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과의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일탈된 성 행동 경험과 관련된 인지·심리 특성을 분석하여 근거기반의 중재로서의 성교육, 인지행동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1) 임상연구윤리위원회 승인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과 관련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인 지적장애인은 '연구'라는 특수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연구과정이 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이하 IRB)의 승인을 득하였다.

IRB에서는 연구계획서, 동의서,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등을 심의 하였다. 3차에 걸친 수정 및 보완을 거쳤으며 최종 심사 승인 후에, 심의를 거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모집

본 연구는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성 인지 왜곡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로 등록되어 있거나, 지능 또는 적응행동상의 제한으로 인해 의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지적장애로 추정하는 자.

둘째,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회·문화·의학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일탈된 성 행동을 수행하여 개인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례회의 또는 중재 서비스가 제공된 경험이 있는 자.

셋째, 구어를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자.

넷째,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인 자.

다섯째, 그룹홈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위치한 가정 형태의 주거지에서 거주 중인 자.

위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P시 소재 복지관 8개소에 본 연구의 취지와 연구과정을 설명하였다. 협조에 응한 4개소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3) 연구 참여자

이상의 절차로 총 3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	장애 유형	학력	연령	특징
A	여	지적 장애	대학 재학	24세	· 초등학교 재학 중 이웃 동생의 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음 · 중학교 재학 중 동일 가해자로부터 재 피해를 입음 · 이후부터 최근까지 가족과 분리되어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생활 · 성인이 된 이후 친구 및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노래방 등에서 만났으며, 성폭력을 경험한 적 있음 · 현재는 독립하여 원룸에 혼자 거주 중이며 남자친구가 있음
B	여	지적 장애	고졸	31세	·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교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음 · 21세에 혼전 임신으로 첫 출산을 한 이후로, 현재 자녀가 총 4명 · 자녀의 아버지는 총 3명이며, 현재 혼인관계에 있거나 동거하는 남성은 없음 · 생후 100일 경의 넷째 자녀만 양육 중이며, 첫째, 둘째, 셋째 자녀는 보육 시설에 임시보호 중임
C	여	지적 장애 추정	고졸	48세	· 20대 초반에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가정폭력과, 자녀(여아 2명)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위협을 하여 이혼함 · 현재 남편과 재혼하여 3명의 자녀를 더 출산하였으며 현재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 있음 · 다세대 주택 내 옆집에 남편의 내연녀가 거주 중임 · 내연녀가 C와 C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음이 추측되는 정황이 있음

2. 연구 도구

1) 반 구조화된 질문지

참여자의 인지·심리 특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인터뷰에 활용할 반 구조화된 질문을 개발하였다. 질문은 인지와 심리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인지는 성과 관련된 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강간 통념의 구성요인을 분석한 이석재와 최상진(2001), 여성의 성적자기결정능력 척도를 개발한 하늘 외(2020), 지적장애 청소년의 성교육 영역을 살펴본 차세진(2019)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성 지식 22문항, 성 인지 왜곡 4문항, 성적자기결정 7문항으로 총 33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질문 난이도에 따라 2개 버전으로 개발했다.

심리는 정서전염과 공감능력을 살펴본 이연희(2017), 자아개념 구성요인을 기반을 연구한 이훈진과 원호택 (1995).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한 최보가와 전귀연(1993) 등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리는 공감 6문항, 정서조절 5문항,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 7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연구 참여자의 이해와 대답을 돕기 위해 추가질문도 개발하였다. 질문은 연구 참여자의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반구조화된 질문

구분	영역	주제	문항(갯수)	
			질문	추가질문
(성)인지 특성	성 지식	신체부위, 생리,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성병	22	
	성 인지 왜곡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	5	
	성적 자기 결정	성의식 및 성 태도, 성적 자기주장	7	
심리 특성	공감	분노, 슬픔, 불행, 두려움 불안, 행복, 기쁨, 즐거움	6	24
	정서조절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정서 전환	6	19
	자아개념	신체, 가정, 사회, 성격-도덕	4	12
	자아존중	능력, 행복, 호감	3	3
합계			111	

2) 연구자의 배경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주요한 연구 도구이기에 연구자로의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현재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10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장애인 성교육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에서 나아가, 장애인 스스로가 성적자기결정권을 갖고 올바른 성 발달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연구자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하였으며,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성교육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발달장애인용 성교육 콘텐츠 개발과, 경계선 지능인의 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인터뷰는 개인정보 및 참여자의 인권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1:1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 공유를 허락하지 않은 복지관 및 연구 관계자에게 참여자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회의실 등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자택 근처의 카페에서도 인터뷰를 하였다.

둘째, 1인당 최소 3회, 최대 4회의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1회당 42분~87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왜곡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터뷰 횟수 및 시간을 엄수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50분 이상 인터뷰 시에는 10분 이상 휴식하였다.

셋째, 전체 인터뷰를 녹음기 2대로 녹음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녹음을 안내 하였고, 녹음 시작을 고지한 후에 녹음을 시작하였다. 녹음파일은 연구자만 확인 가능한 컴퓨터에 저장했다.

4. 자료 분석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은 연구자가 전체 전사하였다. 전체 녹음자료는 약 700분이며, 전사자료는 A4용지 약 200쪽 분량이었다. 녹음 자료에서 발음이 불분명하여 명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뷰 전후 맥락 등을 통해 유추하여 전사하였으며, 방언으로 인해 정보 전달이 어려운 단어는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어로 수정하였다.

전사한 자료를 연구자가 반복읽기 하였으며, 텍스트로 의미 및 분위기 전달이 불충분할 경우 녹음자료를 반복듣기 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뷰의 언어·비언어적 정보를 충분히 담은 분석을 하도록 노력했다. 반복읽기를 통해 각 참여자별 유의미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3명의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유의미 주제를 선정하였다. 공통된 핵심 주제에는 인지·심리적 특성 이외에 경험적 특성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하지 않아 분석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의미 주제에 부합하는 대표 인터뷰 사례를 추출했다. 유의미 주제와 여러 인터뷰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주제로 적절한 명칭을 부여했다. 핵심 주제 및 인터뷰 내용은 특수교육학 박사 2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도록 허락한 1인의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5. 연구윤리 준수

지적장애인 연구 참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본 연구를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연구 설명문을 읽기 쉬운 버전으로 개발하여 IRB 승인을 받았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참여 기간, 연구 참여자의 준수 사항. 연구 참여자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여 총 15개 항목을 포함하였다. 설명문은 연구자가 읽고 추가적인 설명도 제공하여 전달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에게 서면 및 구두로 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동의서는 연구자가 보관하였으며 사본은 임상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와의 라포 형성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인터뷰 시작 전 1회 이상 만남을 가졌다. 연구 내용 및 연구자의 배경 정보 등을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다.

넷째, 대답하기 싫은 질문은 거부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연구 설명문에 '저와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 말하기 싫거나,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시면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니까 적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명시하였다. 인터뷰 중에도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기 전에는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응답을 거부한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섯째, 연구 종료 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 A는 인터뷰에서 사회문화적 성에 비해 생물학적 성 지식에 제한이 더 크다는 것이 나타났다. 본인도 성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보여, 인터뷰 종료 후에 연구자가 별도의 성교육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공유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파악한 가정폭력, 금융 사기 등의 내용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Ⅲ. 연구결과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인지·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1.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인지 특성

1) 성 인지적 특성

(1) 제한적 성 지식

성 지식이란 2차 성징, 생식기 구조와 기능, 임신·출산·피임 등의 신체적 지식은 물론 심리·발달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노경자, 2019; 박인아, 2022). 연구 참여자 3인은 여러 성 지식 영역 중에서도 신체 구조 및 기능 등에 대한 성 지식에서의 제한이 두드러졌다.

〈표 3〉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인지·심리 특성 결과 요약

구분	영역	주제
인지 특성	성 인지적 특성	제한적 성 지식
		성 행동 경험에 근거한 왜곡된 성 태도와 고정관념
		섹슈얼리티의 추구와 일탈된 성 행동 경계에서의 갈등
	관계 인지적 특성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정의 어려움
		타인 의존형 문제해결
심리특성		사회적 통념과는 차이가 있는 가치 기준
		타인과의 소통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
		나와 타인에게 공감 없는 무덤덤함과 우울감

여성의 신체에 질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거나, 존재는 알고 있어도 기능에 대한 지식이 적어 월경혈과 소변이 모두 요도를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였다. 또는 피임약을 먹으면 전혀 생리를 하지 않는다, 생리는 임신이 되려고 하는 날이다, 여성의 생식기 명칭을 '클리토리스', 남성 생식기 명칭을 '불알'이라고 한다 등의 결과를 보였다.

연구자: 그러면 혹시 생리가 나오는 데는 어딘지 알아요?
A: .....
연구자: 어딘지는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A: 알긴 아는데...
연구자: 어디서 나오는지 알긴 하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게 오줌 나오는데랑 생리 피 나온 데랑 다른 거는 알아요?
A: 아니요.

연구자: 이런 부위(생식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B: 여자는 질이라고 하지 않나요?
연구자: 질. 그럼 남자는?
B: 불알
연구자: 불알. 그럼 혹시 이 밑에 부분(음낭)이랑 위에 부분(음경)이랑 이름이 다른 거는 알아요?
B: 네 대충은 아는데.... 그건 잘....
연구자: 그럼 이렇게 오줌 나오는 이 신체 부위(그림의 생식기 부분을 가리키며) 전체를

묶어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B: .... 여자를 말하는 건지
연구자: 여자, 남자 다
B: .....
연구자: 그럼 여자의 신체에 이 부위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너 여기 씻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잖아.
B: 크리토리스?

연구자: 임신하는 동안에 생리할까요?
C: 안 해요
연구자: 임신할 때 왜 생리 안할까요?
C: 몰라요, 안 나오더라고요

(2) 성 행동 경험에 근거한 왜곡된 성 태도와 고정관념

성 태도란 개인이 성에 대해 가지는 일관된 사고, 감정,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희, 이명화, 1997). 성 태도는 성평등의식을 비롯한 성 인지감수성 등과 높은 상관을 가져(김수올, 김소명, 2022; 박정아, 2020), 성 태도 및 성 인지감수성이 낮을수록 성매매 및 성폭력 등의 폭력에 관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일탈된 성 행동과의 관련성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 3인 모두 이성과의 성관계 동의 과정에서 과도한 남성 중심의 강간 통념(Rape myths)[1]을 보였다.

연구자: 만약에 여자랑 남자랑 스킨십을 하다가 남자가 막 성충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여자랑 하고는 반드시 그때 성관계를 해야 할까요? 안 하고 참을 수도 있을까요? 남자는?
B: 거의 못 참죠
연구자: 못 참는구나.
B: 내가 지금까지 사귀고 만났던 사람들 보면 아예 못 참던 것 같던데요

연구자: 여자들 보면, 딱 달라붙는 옷 입고, 엄청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리 다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남자 꼬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1) 강간통념: 일반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폭넓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행을 부정하고 정당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믿음. 성행위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여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상관이 높음((Marks& Fraley, 2006; White & Kurpius, 2002).

C: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연구자: 그냥 자기가 이뻐서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닐까요?
C: 자기가 이뻐 가지고 입고 싶어서 입어도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연구자: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같이 우리 집에 왔어
A: 전 집을.. 안 들여..
연구자: A씨는 왜 집에 안 데고 와요? 집에 데고 온다는 건 어떤 뜻이 건지?
A: 그냥 사귀는 사이고, 나중에 되면 ... 결혼도 할 사이니까
연구자: 응 그때 되면 데리고 오는데, 그전에는 안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뭐지?
A: 어떻게 할지, 어떻게 될지. 또 사람이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명의 자녀를 둔 B는 여성의 가치를 재생산에 집중하는 고정관념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B: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병원에서나 바깥에서나 이거 하나만큼은 대단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애 만드는 거, 애 생기는 거.
연구자: 아기 낳는 거?
B: 아니, 애 들어서는 게.... 다른 사람보다.... 너무.... 살이 이렇게 쪘는데도, 애를 봤을 정도면, 얼마나 활발한 거냐고
연구자: 거기에 대해선 자랑스러워요?
B: 뿌듯하죠 솔직히. 여자로서 내가 한없이.... 한계점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아기 낳는 거는. 여자로서 아기 낳는 거는 제일 좋은 행복 아니에요?

B: (전 남편의 전 처에 대한 이야기 중) 그러니까 보니까 자식이 없는데 내가 애를 가져 놓으니까 그거 포기는 못하겠고. 여자(전 처) 속에서는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 아기라도 떼오라고. 뺏어 오려고. 걔네 부모님이 애 좀 보여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내가 그냥 거절을 했어요.

B: (B씨를 비난하는 친구 이야기에) 자식이 없어요. 걔는 그런데도 자궁을 드러내버리니까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한 거지.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나니까, '너도 대단하다' 하데요

(3) 섹슈얼리티의 추구와 일탈된 성 행동 경계에서의 갈등
섹슈얼리티란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은 물론 성적 욕구까지도 포괄하는 개념

이며, 시대의 맥락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성적 개념이다(임해영, 2016). 즉, 절대적 기준에서 모든 시대와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올바른 성이라는 것은 없으며, 동일 시대의 동일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이라고 해도 각자의 섹슈얼리티는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

섹슈얼리티가 구성적 개념이며, 주요한 요소로 성적 욕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수성에 말미암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끝없는 갈등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간으로서, 성인 여성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를 성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섹슈얼리티를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경계를 찾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계의 혼란함 속에서 일탈된 성 행동, 왜곡된 성 태도, 사회적 가치 기준, 성적 욕구 충족의 사이를 표류하고 있었다.

연구자: (밤에 찾아와 PC방에서만 데이트했다는 이야기에) 왜... 계속 이러면 안 만난다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용기가 안 났을까요? 아니 너무 사랑했었나? 이유가 뭘까요?

B: 그냥 외로웠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래도, 그런 너라도 내 옆에 있는 게 낫다?

B: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해도 되나? 성적인 게, 너무 심하게, 많이 오랫동안 참다 보니.... 이제 속에서 곪더라고요. 애(친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랑 이렇게 밤 보내는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도 성욕은 되게 센데...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다 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놓으니까... 이제는 '알았어. 그 오빠 늦게라도 와. 집에.' 이러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중략) 성적인 거 말고도 뭐 있었지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 밝힌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조금 세서, (성관계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고, 그냥 싫고...

C: 섹스를 하자고 하는데, '너 시간이 돼?' 이러는 거예요... '안된다. 오늘 하기 싫다'면서... 하기 싫다 하면 '영원히 하지 마라' 이러니까

연구자: 요즘에도 그러십니까?

C: 네

연구자: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하네요?

C: 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지... (중략)

연구자: 만약에 20대였어요, 20대의 아버지(남편)가 '해볼래?' 하면 하기 싫어도 'OK' 하실 거예요?

C: 그렇지요

연구자: 그거는 왜요? 내가 하기 싫은데?

C: 하고 싶으니까

연구자: C씨도요?

C: 네

연구자: 어떤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

A: 결혼할 사이

연구자: 결혼할 사이만요?

A: 네 (중략)

연구자: (전, 현 남자친구와 성관계 경험이 있었으니) 그러면 이전에 만났던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이 있었어요?

A: 저는 있었는데 오빠는 없었대요. 그럼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연구자: 근데 했잖아요?

A: 그때는 이제 피임 도구로 이렇게....

2) 관계 인지적 특성

(1)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정의 어려움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긍정적인 관계를 희망한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와 타인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한 기술을 통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그 결과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한 결과에 기반하여 새로운 관계를 위한 시도를 이어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은혁기, 2001). 지적장애인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크지만 관계를 맺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식, 기술, 평가의 미숙함으로 인해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지인, 친밀한 관계, 연인 관계 등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관계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

일례로, 연구 인터뷰 종료 이후에 연구윤리 계획에 따라 A에게 성교육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적기업 카페에서 만났다. 그곳에 자신 잘 알고 있는 지인이 근무한다며 기대에 부풀어 방문했었다. 하지만 막상 카페에서 만난 지인과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거나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음료를 마시던 중 간단한 눈인사와 안부 묻기 정도를 나누는 것으로 지인과의 만남이 끝났다. 일반적으로 '잘 아는 사람', '지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인식, 기술, 평가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지인 관계에 대한 해석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아마 친밀한 관계, 그중에서도 연인 관계가 대표적일 것이다. 연구 참여자 A, B는 연인 관계의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기준으로 요리를 해 주거나, 약이나 선물을 주는 행동, '책임지겠다'라는 말 또는 느낌을 선택하고 있었다.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C 또한 주변인물 중에서 슈퍼 아주머니만 자신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물건을 사면 덤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이 기준이 가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관계 형성에는 이 기준들을 제외해야 하지만 다음 관계 형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연구자: 이 사람(남자친구)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이유?

A: 이유는 나 아프다고 했을 때, 오빠가 그때 약 사들고 왔더라고요. (중략) 오빠가 그 학교를 다녀서, 000대학 교수님한테 잘 얘기를 해서, 학교 지원 그거 등록비 좀 감면? 그다음에... 일단 뭐 100일 뒤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받았던?

연구자: 선물을 받았어요?

A: 네

연구자: 또 있어요?

A: 그거 한 200일이었을 때, 패딩 잠바?

(중략)

연구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성관계를) 안 했고. 그럼 처음에 (성관계를) 허락한 거는?

A: '오빠가 책임지겠지'라는 생각에... 그때는 진짜 그런 생각이...

(중략)

연구자: 그러면 남자는 성관계가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뽀뽀가 하고 싶다거나, 키스가 하고 싶다거나 하는 이런 성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A: .... 제가 보기에는 저희 오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남친만 할 수 있는 걸까요?

A: 지금 남친만 (중략) 지금 이 오빠는 배려가 있어서

연구자: (넷째 아기 아빠) 어디 살아요?

B: 00시

연구자: 00시 어디에?

B: 몰라요.

연구자: 그걸 몰라요? 어디 사는지를? 몰라? 왜 몰라요?

B: 안 가봤어요

연구자: 그럼 데이트할 때마다 그 남자가 여기 왔어요?

B: 네. 요리는 잘해요. 곧장 와가지고, 한 번씩.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와가지고, 곧장 요리 만들어주고... (중략) (넷째 아기 아빠와) 만났다 하면, 그냥 방 잡고, 영화 보고, 그게 다였던 것 같은데... 나를 그냥 성적으로만 보는 거야. 내가 성질나서 내가 원나잇이냐고, 내가 원나잇 상대냐고 이래버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내(B)가 원나잇 이었으면 내(넷째 아기 아빠)가 연락을 안 했겠지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믿고 다시 연애를 했어요)

(중략)

B: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잠수 타기 하고, 책임 못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말을 뱉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말을 뱉었는데 안 지키라고요. 한 번 도.
연구자: 다들 거짓말하고 책임을 안 졌어요?
B: 좋다고, 좋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돼서 '(아기) 생기고 보니까 이제 책임을 못 지네 이것들이?' 이렇게 돼 가지고

또 다른 친밀한 관계인 가족 내에서는 남성 가족원에 대한 '두려움'을 보였다. A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주 양육자인 할머니 및 친척까지 모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함구하였다. C는 불만이 있거나 원치 않는 상황에도 남편에게는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고등학생 아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에도 '좋아서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공통점은 남성 가족 구성원의 '성격이 그래서', '무섭기' 때문이었다.

연구자: 아버지 성격이 좀 무서우세요?
A: 네. 무서우세요
연구자: 그래서 할머니께서 일부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겼구나. 뒤집어엎을까 봐.
A: 그러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완전 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저도 그거를, 그 성질을 저도 아니까. 아빠한테는 최소한 좀 더, 좀 더.. 늦게 알도록
연구자: 삼촌도 알고, 고모도 알고, 할머니도 아는데 아빠가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A: 이상한데, 그 다른 사람 다 이상하다 생각해요. 왜 그러나면 저희 가족은 아빠 성질을 또 아니까. 더 말을 못 했던 거잖아요.

C: 아빠만 큰소리치고 뭐라 하고 나면은... (싫다는) 그 말이 안 나와버려요.
연구자: C씨는 그럼 그 자리에서 아버지(남편)한테 다르게 말을 못 하고요?
C: 네
연구자: 그 상황이 되면, C씨는 왜 아버지(남편) 앞에 가면, 그런 말을 못 할까요?
C: 가면 무서워요.
연구자: 어떤 게 무서워요?
C: 눈을 부리부리하게 해 가지고, 막 성질을 부려요.
(중략)
연구자: 큰 아이(남자 고등학생)가 C씨를 때려요?
C: 예
연구자: 어떻게 때려요?
C: 그냥 툭툭 때려요.

연구자: 툭툭 치니까. 엄마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딸들이?
C: 네. 걔는 좋아하는 표현이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좋아하는 가보다' 하고 그러고...

(2) 타인 의존형 문제해결

문제해결이란 개인이 처한 부적응적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인지, 정서, 행동적 과정이 곧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김희숙, 2006). 개인은 문제해결을 위한 나름의 패턴을 갖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합리적 문제해결 스타일, 충동-부주의 스타일, 회피 스타일이 있다. 이 중 회피 스타일은 문제해결을 미루거나 피하며 수동적으로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인 역기능적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최이순, 2002).

본 연구 참여자 A, C는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 스타일, 그중에서도 타인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A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대변해 준 전 남자친구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자신의 집을 점거하려는 '언니'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해결은 사회복지사가 하였다. C는 남편의 내연녀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생활에서의 부적응이 심각하지만, 자녀들이 대신 내연녀와 맞서 싸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A: (전 남자친구의 좋은 점은) 대변인
연구자: 나를 대신해서 대변. 어디다 대변을 해주는데요?
A: 그 (성폭력) 가해자한테
연구자: 대신 싸워주던가요?
A: 네
(중략)
연구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A와 같이 살던 언니) 잘 안 나가려 할 텐데?
A: 한 달 뒤에 경찰 불렀어요
연구자: 경찰을 불렀어요? 잘했다. 경찰 부르는 생각은 누가 했어요?
A: 제가 하지 않았고. 그전에 있던 시설 쌤이

C: 우리 저번에 딸이 있을 때, 딸애한테 (내연녀가) 머리 끄집어 당기는 거 보니까..
연구자: 애 머리를 댕겼어요?
C: 네. 그래서 (딸이) 집 나갔어요. (중략) (내연녀에게)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연구자: 왜 못 할까요?
C: (내가) 그렇게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애들도 나가라 할래도, 애들도 말도 못 하고, 남자애들 둘 다 방에 들어가 버리고

연구자: 애들이 대신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안 해줘요?
C: 네

2.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심리 특성

1) 사회적 통념과는 차이가 있는 가치 기준

가치(value)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신념체계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표준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McIntyre, Claxton, & Joneset, 1994). 그 중에서도 생명, 인권으로서의 성, 법률 준수, 아동 양육 등은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매기는 가치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신념이므로 해당 가치에서 벗어날수록 사회적인 삶의 질은 낮아진다. 일탈된 성 행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이러한 가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는 사회적 통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A는 성폭력 가해자 집에 재방문한 이유를 그 집의 동생과 노는 것이 좋아서라고 하였고, 쉼터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가해자에게 돈을 빌릴 것을 염두에 두어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폭력 신고를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쉼터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청소년기에는 성 인권보다 또래 관계에, 성인기에는 성 인권보다 금전이나 생활의 자유로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

A: 아빠(성폭력 가해자) 일은 싫기는 했는데, 그 동생은 좋았기 때문에(다시 가해자 집에 방문하여 성폭력 재범 발생)
연구자: 그 아빠랑 있었던 일이 싫은 것보다, 동생이랑 노는 거가 좋은 게 더 컸어요? 어렸을 때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
A: (중략) 전 (가해자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그래도 '나랑 옆에는 안 있겠지'라는 생각에...

연구자: 그 노래방에서 그런 일(성폭력)이 있고 나서, 바로 선생님이나 얘기하지 않고 며칠 있다가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조금 있다가 하게 됐어요?
A: 어.... 그때는 제가 그 사람(가해자) 돈을 빌릴 줄 알았는데, 걔가 뭐 돈 밀렸다고 돈 갚으라고(거짓말을 했다)

A: (성폭력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다시 또 시설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시설에. 성폭력 시설이라... 심지어 전화도 폰도 사용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냥 외출도 못 하고...

연구자: 그 사람이 벌을..
A: 받기를 원했기 원했어요.
연구자: 응 원했긴 원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시설에 있기 싫은 마음이 더 컸어요?
A: 그때는 시설 들어가는 거는 싫었거든요

B는 유산 경험이 다수 있고, 아동 방임으로 세 자녀를 시설에 맡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파트너가 피임도구를 선호하지 않았고 본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서라고 인터뷰하였다. 안전한 임신·출산이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보다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 높은 가치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유산을 한 적도 있어요?
B: 세 번... 있고.... 생겼는데 지우려니 싫고....
연구자: 그럼 안 생기게 하면 안 지워도 되고, 유산도 안 되는데, 안 생기게 콘돔을 사용하는 건요?
B: 남자 측에서 그게 불편하다 하니까
연구자: 불편하다 하니까 그냥 알았다 했어요?
B: .... 선호하지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먹는 피임약이 있는 반면에 사후 피임약도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니까

연구자: 애 낳는 거... 아기를 넷씩이나 낳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키울 걱정은 안돼요? 나는 키울 걱정은 너무 많이 될 것 같은데?
B: 애들 (시설에) 보내놓으니까... 보내 놓은 지가 한 3년 됐거든요.
연구자: 어디에 뭘 보내놔요?
B: 시설
연구자: 아, 첫째 둘째 셋째를 시설 보내놨어요?
B: 그전에, 3년 전에는 방임이라고 해가지고.... (중략) 애들 시설에서 데리고 갔다가, 이제 1년 뒤에 풀렸어요. 풀려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판사님이 나 지금 우울증에다가 상상병에다가 뭐 엄청 심하다고 치료받고 완치되면 애들 데리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셔서... '그럼 시설에 장기간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되나요?' 했더니 '됩니다' 하면서
연구자: 판사님이 추천해 주셨구나
B: 그러고 나서 작년에 '애 데리고 가셔야 돼요, 데리고 가셔야 돼' 하셨는데, '얘(넷째) 낳고 얘 돌 때 까지만 조금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얘 돌 되

면 이제 애들 다 올 예정이에요.
연구자: 넷을 어떻게 키워요 이제?
B: 그거 신청해 놨어요. 돌봄 아기 선생님들
연구자: 그래도, 그 선생님이 도와주는 건 잠깐이고
B: 반나절
연구자: 그래요, 반나절밖에 안 되잖아요
B: 밤에는 그냥 자면 되죠
연구자: 아기들 다 온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B: 네

C는 남편이 내연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보다 내연녀가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더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경찰서에서 조사와 처벌을 반복하면서도 법률 위반에 대한 두려움이나, 같은 범죄에 다시 가담되었다는 자책감보다는 피해금 변상, 금융 거래의 어려움, 남편의 질타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부부간의 신뢰관계나 법률 준수에 대한 가치보다 개인적인 편의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C: 내연녀 때문에 힘들지요
연구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 내연녀 여자분 때문에 C씨가 화가 나는 게 더 클까요? 아니면 아버지, 남편분 때문에 C씨가 화가 나는 게 좀 더 클까요?
C: 내연녀가 자기 집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어요. 내 집인데 집주인 행동처럼 하고 그래요
연구자: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저러고 있는 그거보다, 저 여자가 내 집에 와서 마음대로 하는 게 더 화나는구나?
C: 네

연구자: 근데 처음에 (보이스 피싱 중간책으로 검거됨) 걸렸을 때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던 거는 그냥 한 말인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C: 그냥 한 말 (중략)
연구자: 근데, 그렇다고 '다음에 또 이렇게 보이스피싱 해야지'라는 생각은 아니었죠? 내가 또 걸릴 줄 몰랐을 테니까.... (보이스 피싱 중간책으로) 두 번째 또 걸렸다는 거 아니까 좀 어땠어요?
C: 조금 무서웠어
연구자: 어떤 점이?

C: 그러면 이거(돈) 다 갚아줘야 된다고
연구자: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게 무서웠어요??
C: 네
연구자: 다른 건 또 뭐가 무서웠어요?
C: 은행이 볼 일을 못 봐가지고
연구자: 그게 좀 그건 무서운 건가? 걱정되는 건가요?
C: 걱정되는 거
연구자: 그러면 또 다른 거 뭐가 걱정됐어요?
C: 아빠 잔소리 듣는 거. 술만 먹었다 하면 잔소리를 하니까

2) 타인과의 소통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

소통은 단순 의사 교환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자원을 얻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곧 사회적 지지로 이어진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를 포함하고 있어 인간의 사회화에 필요한 기술 습득은 물론,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임안나, 박영숙, 2017). 특히 장애인에게 관계와 소통 기반의 사회적 지지는 정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삶에의 적응이 높은 삶의 질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박자경, 엄명용, 2009).

개인에게 중요한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주는 안락함에 대한 욕구는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3명과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였다. 전체 인터뷰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므로 10번의 약속을 하였는데 모든 참여자가 모든 약속을 잘 지켜주었다. A, C는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 자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 상담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대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A는 불특정 다수가 많은 환경인 시장에 갈 때면 장 보는 내내 남자친구와 전화를 한다고도 하였다.

A: 이제, 장 보러 갈 때는 거의 다 혼자 가야 되니까
연구자: 장 보러 혼자 가면 재밌지 않아요? 나는 혼자 잘 가는데? 왜 뭐가 그리 힘들지?
A: 옆에 수다 떠는 사람 없잖아요
연구자: 아 옆에 수다 떨 사람이 필요했구나. A씨는 그렇게 시장 가는 거 이런 거 일상생활할 때 옆에 누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A: 네 (중략)
연구자: 그리고 이것도(인터뷰) 굳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잘 해주잖아요? 성실하게. 이건 왜 그럴까?
A: 상담하고 싶어서

연구자: 그럼 나름,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었을 때 나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C: 해소 방법은 상담할 때 말고는 없어요.
연구자: 복지관에서 상담하시고?
C: 복지관에서 상담하고 행복 두드림 센터에 상담하고
연구자: 그거 갔다. 오면 좀 나아지십니까?
C: 네 (중략)
연구자: 사람 만나는 거, 나가는 거는 싫은데, 저랑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거 잘 와 주시고, 다른 데 선생님들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잘 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상담하시는 게 좀 마음이 좋으신가 봐요?
C: 네 (중략) 어디 대놓고 얘기할 데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몇 년을 살아도 동네 아줌마 이름도 모르는데...

3) 나와 타인에게 공감 없는 무덤덤함과 우울감

친사회적 행동이나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을 위해서는 타인의 생각, 느낌,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을 공감(empathy)이라고 한다(최혜라 외, 2018). 공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타인 및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이해나 추론 등을 하는 인지적 공감과, 타인의 표정이나 표현을 즉각적으로 수용·모방하는 정서전염을 포함한 정서적 공감 모두가 필요하다(이연희, 2017).

공감능력은 인지적 발달 및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 증가에 따라 그 능력이 점차 향상되는 특징을 가진다(황수영, 윤미선, 2019). 다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지적장애라는 인지적 제한과 함께 감정의 수용과 표현이 적은 환경으로 인해 연령은 성인이지만 공감능력에 어려움을 가지는듯한 인터뷰를 하였다. A, B, C 모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큰 감정 변화를 잘 느끼지 않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A, B는 본인의 감정 변화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슬프거나 기쁜 상황 및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에 거리를 두거나 자신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C는 즐겁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큰 표현이 적었다. 인터뷰 동안에도 크게 웃거나 감정 변화가 보일 만큼의 표정 변화도 적었다.

연구자: 내가 지금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났다는 걸 잘 알아차리는 편이에요? 그냥 무던하게 그냥 잘 넘어가는 편이에요?
A: 무던하니 넘어가요. (중략)
연구자: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꼭 못된 사람이나 나쁜 사람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아니면 좀 짜증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A씨는 어때요?
A: 왜 그러지?

연구자: 그냥 '왜 그러지?'. 그 사람이 짜증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거 가지고 A씨가 같이 막 이렇게 흥분하지는 않아요?

A: 그러지는 않아요

연구자: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나쁜 행동이나, 짜증나는 행동이나,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행동들을 하면 어때요?

A: 일단은 저는 거리를 둬요.

연구자: 드라마 같은 데 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 보면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불행이나 힘든 게 진짜 내 일처럼 와닿아요?

B: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별개.

연구자: 그런 얘기(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큰 소리로) 웃어요? 아니면 그냥 '(작은 소리로) 재밌다' 이렇게 웃어요?

C: (피식 웃음)

연구자: 이렇게는(큰소리로 웃음) 안 하시죠?

C: 네

연구자: '재밌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웃는 이게 끝이에요?

C: 네

연구자: 소리 내서 크게 웃어본 게 언제예요?

C: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공감능력은 우울과도 높은 상관을 가진다. 인지적 공감은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음이 명확하여 우울이 조망수용 능력의 손상과도 관련이 있다. 정서적 공감의 요인인 자기비난은 개인적 고통의 정적 효과를 완전 매개하며, 개인적 고통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최혜라 외, 2018).

낮은 공감능력이 우울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 참여자 3인 모두 우울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거나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A, B는 과거 및 최근에도 우울증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였다. C는 자신을 무기력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은 활동량 및 지속적인 수면을 희망하는 등 우울을 유추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A: 한 번은 우울증...

연구자: 우울증이 있었어요? 언제요?

A: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네 엄마 없잖아' 소리를 해서.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연구자: 그전까지는, 할머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 괜찮았는데

A: 할머니 잘 키워주셨고. 할머니가 이제 전화하면, 할머니가 받을 거니까. 근데 딱 그때, 딱 위기인 게... 네 엄마 없잖아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제가 너무 혼란했어요.

연구자: 그래서 그때 약간 우울증 같은 게?

A: 많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화 관계가... 병원에서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B: 정신과 병원에서는 우울증에 상상병이 상상병에 우울증 합병... 다.... '참고 참고 참고 참다가 이게 터트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것 같네요'라고 하면서 되게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차라리 못 참을 것 같으면 산이든 바다든 여행이든 부모님한테 애 맡겨놓고 갔다 오는 게 낫지, 왜 그렇게 자해를 하냐. 나중에는 뒤 수습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최근 2년 동안에는.... 최근에 2년 동안 3년 동안에는 아무 일 없었어요.

연구자: 내가 내연녀한테 그 말 하면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참 슬프다. C씨가 보기에, 본인 스스로는 조금 자랑스럽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일까요?

C: 그렇지 못한 사람 (중략)

연구자: 그래도 C씨 잘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C: 잘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연구자: C씨 스스로에게 좋은 점. C씨 생각하기에 '나의 이런 점이 참 좋다' 싶은 거

C: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뭐가 다 없어요? C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C: 혼자 있었으면...

연구자: 혼자 있으면 어찌하시려고요?

C: 혼자서 이제... 한 며칠 동안이라도 잤으면 좋겠어요

Ⅳ. 논의

1.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인지 특성

1) 성 인지적 특성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성 인지적 특성으로는 '제한적 성 지식', '성 행동 경험에 근거한 왜곡된 성 태도와 고정관념', '섹슈얼리티의 추구와 일탈된 성 행동 경계에서의 갈등'의 3개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 3인은 모두 월경과 성관계 경험을 갖고 있고, 2인은 출산 경험이 4회 이상씩 있기 때문에 신체구조 및 기능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3명 모두 '질'의 존재나 기능을 알지 못하였고, 출산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임신기간 동안에는 생리를 하지 않더라'는 경험적 지식만 갖고 있었다. 지적장애 성인이 특정 성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며(Kijak, 2013), 성인기에 추가적인 성교육의 부재가 이러한 상황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김영숙, 김영걸, 2015).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을 새로운 학습이 가능한 환경적 자극으로 본다면,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을 통해 왜곡된 성 지식이 더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성 태도는 강간 통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남성 중심의 성 태도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으로 '남성은 성욕구를 조절할 수 없다', '여성의 짧은 치마는 남성의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도출되었다. 성범죄에 국한된 일탈된 성 행동을 보인 청소년에게서도 왜곡된 성인식이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발견되기는 하지만(김유희, 이영준, 2019; 전영실, 2001), 본 연구 참여자의 결과와 직접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성 태도 또한 개인의 신체·정서적 발달과 주변의 인적자원 및 사회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변화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오인숙, 2012), 지적장애인 또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학습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성 태도는 취약한 가정환경 및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밖에 이들과 성을 주제로 소통하는 인적·제도적 환경의 왜곡 또는 일탈된 성 행동을 유지시키게 되는 환경-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성 지식과 성 태도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중요한 요소이자, 성폭력 허용도 및 성 행동 허용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강차선, 박정환, 2016; 김순구, 2021; 한인영 외, 2001). 성 지식과 성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을 만큼(이현혜, 2003) 관련이 높고,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과정에서 성 행동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 성 행동 결정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 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성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정서적 강요나 지배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상태의 성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

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낮은 성 지식과 성 태도는 성 행동 위험요인으로 꼽히며(한인영 외, 2001), 비장애 대학생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고(강차선, 박정환, 2016), 성 인지 감수성이 낮을수록 인터넷 음란물 접촉 빈도와 성 행동 허용성이 높아짐이 나타났다(김순구, 2021). 지적장애 여성의 성건강을 다룬 질적연구들을 메타분석한 Matin과 동료들(2021)의 연구에서도 지적장애 여성의 건강한 성관계 경험의 주요 장벽이 성 지식의 부족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즉, 제한된 성 지식과 왜곡된 성 태도에서 성 행동을 선택한다면 일탈된 성 행동을 포함한 부정적 성 행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성 인지 마지막 결과로 '섹슈얼리티의 추구와 일탈된 성 행동에서의 경계'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데이트 없이 밤에만 집으로 찾아오는 연인을 허용하거나, 결혼할 사람과만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성관계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나의 요구보다는 배우자가 성관계를 요청에 따라 성관계 유무가 결정되는 등의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의 성욕을 사회적 허용범위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표현하고 주체적으로 성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은 것으로 보았다. 성인 여성이 성적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하며, 미숙하나마 개인이 구성하고 추구하는 방식으로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인터뷰에서 '성욕', '나도 하고 싶으니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에 멈칫하게 되는 것은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대하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 아닐까 한다.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성적욕구는 장애인 복지와 특수교육의 발전과는 별개로 여전히 적극적인 외면과 무시를 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가장 큰 장벽을 사회적 편견으로 꼽을 정도이다(Mayers, et al., 2003; Neufeld, et al., 2002). 사회적 편견은 장애인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 남성 지적장애인은 성적 욕망에 대해 더 많은 표현을 하며(Chou, et al., 2015), 자위 경험 비율은 여성의 두 배가 넘는다(Kijak, 2013). 부모들은 지적장애 남성이 성욕을 조절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Cuskelly & Gilmore, 2007; Gilmore & Chambers, 2010), 지적장애 여성의 부모보다 자녀의 재생산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Chen & Chang, 2011). 지원인력 또한 지적장애인의 섹슈얼리티를 지지할 때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oung, et al., 2012).

지적장애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추구할 때 경험해야 하는 '장애', '여성', '인지적 제한'이라는 다중적 차별은 개인의 성적 욕구와 사회적 가치규범 안에서 무엇이 적절한 선택인지를 어렵게 한다. 장애인이 곤란을 겪는 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인 장애인 한 명에게 집중된 장기적 지원을 위한 자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하필 성을 지원한다는 것, 그것도 성적 욕구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지원이 있다고 해도 지원인력이 바라보는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그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Muswera & Kasiram, 2019). 그러다 보니 장애인 또한 일정하게 지원을 받고 장려되는 활동인 자립·독립생활 기술은 서툴기는 해도 지향하는 방향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지원과 인정이 부재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는 늘 뒤처져있기에 시

행착오가 산재할 수밖에 없다(Esmail, et al., 2010). 그리고 섹슈얼리티 구성의 시행착오는 일탈된 성 행동이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2) 관계 인지적 특성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관계 인지적 특성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정의 어려움', '타인 의존형 문제해결'의 2개가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인물이 나와 친밀한 관계, 신뢰로운 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 또한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 A는 좋은 연인의 기준을 선물을 사주는 사람, 나를 책임질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이었다. B는 '책임질게'라는 말을 하는 파트너를 믿지만, 그에 반해 파트너의 거주지나 구체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C는 내 주변의 사람 중 나를 좋아해 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슈퍼 아주머니를 꼽았고 그 이유는 덤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적장애인이 관계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다(Schaafsma, et al., 2017).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찾자면,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한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동일 기준으로 '친밀함'을 판단하는 오류를 보인다는 것이다. A는 모든 남자는 성적 욕구를 조절할 수 없지만 지금의 남자친구만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B는 책임진다는 이야기의 끝에 출산 후 사라진 2명의 전 파트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파트너의 '책임진다'는 말을 듣고 네 번째 출산을 하였다.

이상의 관계 인지적 특징이 나타난 원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적용한 기준은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저해하는 일종의 '성적희생'으로 볼 수 있다. 희생에 가까운 관계에 동의하는 이유를 본 연구가 분석한 '관계 인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여자들의 희생은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관계의 유지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려는 목적과 함께 성적으로 둔감하게 보여 관계가 깨질지 모른다는 위험으로부터 회피하려는 목적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Impett & Peplau, 2002; Schaafsma, et al., 2017).

특히, 위험 회피 목적은 회피형・의존형 문제해결이라는 분석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회피형・의존형 문제해결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큰 사건 없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타인에게 문제해결을 위탁하여 그 결과에서 자신의 갈등이나 죄책감을 면하려는 동기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위세영, 2019). 물론, 인터뷰 내용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직접적으로 문제해결 특징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피형・의존형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록 우울・불안이 증가하며 정신・신체 건강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는(이지숙, 윤용희, 2019; Ben-Zur, 2009) 성적희생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한다.

둘째, 사회적 관계 형성·유지 및 자기결정을 위한 인지적 이해 및 경험의 제한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제한은 사회적 관계 형성·유지 및 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인지적 이해 및 기술 활용의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경험하고, 경험에 대한 명시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이 포함된 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결정의 일부라고 본다면, 일탈된 성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는 '지원'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Wehmeyer, 1996). 무조건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안전한 인물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적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관계나 자기결정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제한적인 이해에는 반드시 지원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조차 친밀한 관계의 특징이나 상호작용법을 익히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문제가 알려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존재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역사회는 올바른 자기결정이 무엇인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등을 미리 지원하고 함께 선택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했다'는 미명하에 이미 낮아진 삶의 질을 유지하고 원상 복귀 시켜보려는 후속 대책 중심의 지원들만 지속하고 있었다.

2.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심리 특성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심리 특성으로 '사회적 통념과는 차이가 있는 가치기준', '타인과의 소통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 '나와 타인에게 공감 없는 무덤덤함과 우울감'의 3개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 특성 첫 번째로 도출된 결과는, 그들의 '가치 기준'이 일반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성폭력의 위험보다도 또래와 놀이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거나, 이미 3명의 아이를 방임으로 시설에 위탁했음에도 피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내연녀가 옆집에 살도록 방치하는 남편보다도 내연녀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더 싫은 등의 일화를 통해서 그들의 선택의 근거가 되었던 가치의 기준을 알 수 있었다.

가치에 대한 기준은 사회, 문화,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 없으며, 다수가 동의하는 가치가 반드시 옳은 것 또한 아니다. 비장애인의 가치기준을 지적장애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가치기준을 폄하할 수 없다. 다만, 가치는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행동이 되어야 하는데(Schwartz & Bilsky, 1987), 연구 참여자들의 가치 기준은 일탈된 성 행동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왜곡된 형태이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가치는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박수정, 2003) 지적장애인이 개인적 수

준에서 반복된 경험을 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수정이 어려우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우울과 관련된 진단 또는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으며, C는 현재도 매우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인해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며칠 동안이라도 잤으면 좋겠어요'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 타인에 대한 공감은 물론 본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에도 무덤덤하고 마음의 동요를 크게 느끼지 않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우울을 경험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성 관련 피해 경험은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비롯한 행동문제의 후유증을 남기는 것과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김지혜, 김희주, 2017). 참여자의 일탈된 성 행동은 긴 시간 유지되고 있어 회피형・의존형 문제해결과 같은 개인 고유의 방식을 갖게 하는데, 감정 및 정서에 있어서도 유사한 방식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거나 타인의 정서가 즉각 전이되어 공감하고 표현하기보다는 감정에 무덤덤해짐으로써 정서적 충격에서 회피하려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이 우울과 부적상관을 가진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최혜라 외 2018), 참여자들의 정서 전염 및 공감능력의 저하는 우울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우울의 연결고리에 공감능력이 있다면 이는 중재방안 마련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왜냐하면 지능, 마음이해 능력, 조망수용 능력 등이 인지적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Jolliffe & Farrington, 2004), 지적장애인이 절대적으로 낮은 공감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지적・정서적 공감능력은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사회적인 소통과 사회적인 지지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높은 동기수준도 갖추어진 장점이 있다.

소통욕구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밝혀내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소통을 희망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무덤덤해지고, 상황을 회피하려 하고, 우울한 등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통하고 지지를 얻고자 한다. 특히, 인지적 제한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만한 주제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 수준으로, 안락한 공간에서, 공감 어린 표현을 제공하는 타인이 필요하다.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소통 상대자를 찾기 어렵다 보니 복지관이나 연구자가 제공하는 '상담'을 선호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이 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방법으로 '상담'을 선호하는 것은 삶의 질을 저해하는 일탈된 성 행동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키는 지원 방안 마련에 매우 긍정적이다.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점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상담' 형태의 소통이 줄어들게 될 경우이다. 그루밍 범죄처럼 개인의 소통 욕구를 의도적으로 충족시키며 피해자를 '길들여' 성범죄를 포함한 일탈된 성 행동을 종용하거나, 금전적 착취 등의 범죄 피해를 주거나, 범죄의 가해자가 되도록 하는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황순영, 차세진, 2021).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의 일탈된 성 행동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는 성교육이나 물질적 자원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소통과 같은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1. 평생교육을 통한 생애주기별 성교육 제공

일탈된 성 행동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성 인지적 특성의 결과는 성 지식, 성 태도, 섹슈얼리티를 형성에 있어 왜곡과 편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걸친 성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생애 초기에 해당하는 학령기 동안에는 연 2회의 성인권 교육을 통해 성 지식이나 성 태도를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기에 제공되는 공식적 성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학령기에 배운 내용을 성인기까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김영숙, 김영걸, 2015).

성인기의 성교육 필요성과 현실적 제한점에 따라, 성교육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김경열, 2017). 국내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장애인 복지관,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주체가 운영하고 있어 당사자의 접근 가능성이 높다. 평생교육 제공인력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특수교사 등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는 점도 주요한 장점 중 하나이다.

성인기 성교육을 평생교육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먼저, 지적장애 성인을 위한 별도의 성교육 내용 및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표윤희 외, 2023). 동일한 내용이라도 학습자의 생활연령을 고려한 교재교구가 준비되어야 하며, 지적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성이나 기대하고 있는 성교육에 기반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둘째, 지적장애 성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학생 성교육에 초빙되는 성교육 강사는 대부분 교육대상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김두희, 2017). 성인기 장애인은 장애학생보다도 연령대가 넓고 개인적인 경험 폭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은 물론, 성인기 장애인의 특징, 성인기 장애인 교육방법 등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무엇보다도 장애인에게 생애 전반에 걸친 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장애인 당사자, 주변인, 지원인력 등이 공감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장기간의 사회・정서적 지원

연구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가치기준, 친밀한 관계 구분, 사회적지지 등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옳고 그름을 교육하기 어렵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나은 선택이 달라지기도 해서 지적장애인에게는 더욱 힘든 영역이다. 개인의 상황과 시기에 적절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한 명 한 명을 장기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의 주요한 실천방법 중 하나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눈여겨볼 만하다. 사례관리는 당사자의 개별적인 욕구 및 문제에 따라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이다(최지선, 2012). 지금까지는 인력 및 재원의 한계로 인해 매우 복합적이고 특별한 어려움에 있는 대상을 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둔 지원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지적장애인 개인의 성격, 장애 정도, 과거 경험, 인적 자원,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누적하여 프로파일화하고, 주기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의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조력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지적장애인에게 사례관리 담당자는 주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역할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20-40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사례관리가 적절하였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에서의 사례관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10대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소통에 매우 익숙하다. 때문에 경계성 지능 및 지적장애인이 불특정 다수와의 온라인 소통에 참여하고 이것이 일탈된 성 행동 및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김정혜, 2020). 앞으로의 지원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소통, 지지, 일탈된 성 행동 등을 전반적으로 중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차선, 박정환 (2016).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제주지역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8), 273-279.

고은숙, 이세정, 이호준 (2018). 청소년의 성범죄 실태와 그 심리. 법학연구, 18(1), 431-451.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권애리, 박원희 (2011). 경도 지적장애 여고생의 성 비행 경험 탐색. 통합교육연구, 6(2), 197-223.

김강률, 김인향, 안동현 (2020). 발달장애가 동반된 성범죄자의 정신의학적 평가 및 치료.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9(1), 29-35.

김경열 (2017).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발전 방안을 위한 델파이 연구. 발달장애연구, 21(3), 1-17.

김두희 (2017).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성교육 실태에 관한 특수교사의 인식. 재활심리연구, 24(1), 183-201.

김수울, 김소명 (2022). 대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가 성 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9(2), 359-367.

김순구 (2021). 대학생의 성 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 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이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8), 268-278.

김영숙 (2021). 장애학생을 위한 성(性)과 성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2011년~2020년). 지적장애연구, 23(3), 137-159.

김영숙, 김영걸 (2015). 발달장애인의 성인식과 성 태도에 따른 성교육지원 연구. 지적장애연구, 17(3), 161-184.

김유희, 이영준 (2019), 청소년 성범죄자의 정신 병리에 따른 유형 분류와 치료적 효과의 차이. 보호관찰, 19(2), 203-234.

김정혜 (2020).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브리프, 53.

김지혜, 김희주 (2017). 생태체계 관점에서 본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이후의 경험에 대한 연구: 시설거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382-395.

김진우 (2008). 장애연구에의 지적장애인의 참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0(3), 83-106.

김혜원, 이해경, 구본권 (2003). 정신지체 학생들의 성교육 현황 및 성 행동: 교사와 부모간 인식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38(3), 427-452.

김희숙 (2006). 정서조절양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상명대 학생생활연구, 176-200.

노경자 (2019).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정책적 함의: 남자 중학생의 성 태도와 성 지식 변화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현주 (2015).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재활복지, 19(3), 1-29.

박상희 (2015).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성부적응행동 및 성교육 실태. 지적장애연구, 17(3), 185-207.

박수정 (2003). 청소년의 가치기준, 여가태도, 여가기능에 관한 인과적 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6(2), 363-375.

박인아 (2022).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청소년의 성 지식, 성 태도, 성 인지감수성 및 성적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자경, 엄명용 (2009).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장애수용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3(4), 1-23.

박정아 (202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성평등의식이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경백, 이영준, 김경란, 김현정, 송동호 (2012). 국내 성폭력 가해자의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특성. 신경정신의학회지, 51(1), 170-177.

오인숙 (2012).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 태도, 성 행동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위세영 (2019). 희생의 접근-회피 동기, 이성간 신뢰와 갈등에 따른 군집 유형별 결혼이미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혁기 (2001). 청소년들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만족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9, 136-57.

이동영 (2009).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에 따른 장애여성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 법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1), 281-308.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 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이수정, 이은진 (2017). Korea Inventory of Sexual Deviations 성일탈검사 전문가 지침서. ㈜인싸이트.

이수정, 장은영, 양재원 (2015). 지적장애와 성범죄. 교정담론, 9(1), 125-166.

이연희 (2017).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정서전염과 공감에 미치는 미시체계 구조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지숙, 윤용희 (2019). 중학생 청소년의 분노, 문제해결, 문제행동의 관계 연구: 문제해결 유형별 조절효과 분석. 학교사회복지, 45, 85-106.

이현혜 (2003). 정신지체인의 성 행동실태와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연차학술발표논문집. 277-290.

임안나, 박영숙 (2017).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675-682.

임해영 (2016).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 경험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3, 153-183.

장은영 (2014).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성 인지 왜곡 상의 특이성: QACSO 검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영실 (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1-199.

차세진 (2019).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모듈형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최이순 (2002). 사회적 문제 해결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13-428.

최지선 (2012).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실천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229-264.

최혜라, 한수미, 김 환 (2018). 정서공감과 우울의 관계: 자기비난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2), 144-154.

탁진국 (1997). 건강: 대처양식: 개인특성, 스트레스유발사건, 그리고 건강간의 관계에 대한 다변량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157-167.

표윤희, 김유리, 서민경 (2023). 발달장애 성인의 성교육 실태 및 기관 종사자의 성 태도: 장애인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5(2), 187-213.

하늘, 김소연, 홍현기, 손연주, 김기평, 현명호 (2020). 여성용 성적 자기결정능력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5(2), 151-172.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 (2001). 청소년의 성 행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1), 138-148.

황수영, 윤미선 (2019). 연령과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33(2), 193-210.

황순영, 차세진 (2021). 발달장애인의 성·재산 범죄 가해·피해 사례와 지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경험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총, 37(3), 1-29.

Ben-Zur, H. (2009). Coping styles and a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6*(2), 87.

Burns, J. (2000). Gender identity and wom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The third sex. *Clinical Psychology Forum, 137*, 11-15.

Chen, Y. C., & M. H. Chang. (2011). A study of parents' marital attitude for thei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high school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4,* 57-100 (in Chinese)

Chou YC, Lu ZY, Pu CY. (2015). Attitudes toward male and female sexuality among men and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omen Health. 55*(6), 663-78.

Cuskelly, M., & Gilmore, L. (2007). Attitudes to Sexuality Questionnaire (Individual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Scale development and community norms.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32*, 214-221.

Esmail, S., Darry, K., Walter, A., & Knupp, H. (2010).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s

disability and sexualit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2*(14), 1148-1155.

Gilmore, L., & Chambers, B. (2010). Intellectual disability and sexuality: Attitudes of disability support staff and leisure industry employees.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35*, 22-28.

Hingsburger, D., Griffiths, D., & Quinsey, V. (1991). Detecting counterfeit deviance: Differentiating sexual deviance from sexual inappropriateness. *The Habilitative Mental Healthcare Newsletter, 10*(9), 51-54.

Impett, E. A., & Peplau, L. A. (2002). Why some women consent to unwanted sex with a dating partner: Insights from attachment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4), 360-370.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4). Empathy and offend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5), 441-476.

Kijak, R. (2013). The sexuality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Poland. *Sexuality and Disability, 31*, 109-123.

Lindsay, W. R. (2015). *The Treatment of Sex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Practice work book.* John Wiley & Sons.

Marks, M. J., & Fraley, R. C. (2006). Confirmation bias and the sexual double standard. *Sex roles, 54*(1-2), 19-26.

Matin, B. K., Ballan, M., Darabi, F., Karyani, A. K., Soofi, M., & Soltani, S. (2021). Sexual health concerns in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in qualitative studies. *BMC public health, 21*, 1-21.

Mayers, K. S., Heller, D. K., & Heller, J. A. (2003). Damaged sexual self-esteem: A kind of disability. *Sexuality and Disability, 21*, 269-282.

McCarthy, M. (2014).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ir sexual live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39*(2), 124-131.

McIntyre, R. P., Claxton, R. P., & Jones, D. B. (1994). *Empirical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style and LOV: implications for values and value systems.* ACR North American Advances.

Mencap. (2002). *Am I making myself clear? Mencap's guidleines on accessible writing. Retrieved* from http://www.easy-read-online.co.uk/media/10609/making-myself-clear.pdf

Muswera, T., & Kasiram, M. (2019). Understanding the sexuality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residential facilities: Perceptions of service provide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Work, 55*(2), 196-204.

Neufeld JA, Klingbeil F, Bryen DN, Silverman B, Thomas A. (2002). Adolescent sexuality and disability. *Phys Med Rehabil Clin North Am, 13*(4), 857-873.

Schaafsma, D., Kok, G., Stoffelen, J. M. T., & Curfs, L. M. G. (2017).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alk about sexualit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ex education. *Sexuality and disability, 35*, 21-38.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550.

Stinson, J., Christian, L., & Dotson, L. A. (2002). Overcoming barriers to the sexual expression of wom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27*, 18-26.

Wehmeyer, M. L. (1996). *Self-determination as an educational outcome. Self-determination across the life span: Independence and cho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7-36.

White, B. H., & Kurpius, S. E. R. (2002). Effects of victim sex and sexual orientation on perceptions of rape. *Sex Roles, 46*, 191-200.

Young, R., Gore, N., & McCarthy, M. (2012). Staff attitudes towards sexuality in relation to gender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37*(4), 343-347.

Abstract

Analysis of cognitiv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ly disabled women with experience of deviant sexual behavior*

Cha Se-Ji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defined deviant sexual behavior as 'various sexual behaviors that degrade an individual's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gnitiv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have experience of deviant sexual behavior and provide them as evidence for preparing sex education and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 measures. **Metho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participant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 woman in her 20s who has experienced repeated sexual violence, a woman in her 30s who gave birth to 4 children with 3 partners, and a woman in her 40s who lives next door to her spouse's mistress. Interviews were conducted 3 to 4 times per person, lasting 42 to 87 minutes each. After the interview data was recorded and transcribed, the researcher classified them into meaningful categories. **Resul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rviews in this study, cognitive characteristics were divided into gender-sensitive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cognitive characteristics. Gender-sensitive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as 'limited sexual knowledge based on experiences of deviant sexual behavior', 'male-centered distorted sexual attitudes and stereotypes', and 'conflict on the border between the pursuit of sexuality and deviant sexual behavior'. Relational cognitive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as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correcting close relationships' and 'solving problems dependent on 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as 'value standards that are different from social norms', 'desire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social support', and 'calmness and depression without empathy for myself and others'. **Conclusion:** Provision of sex education for each life cycle through lifelong education and long-term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based on communication were proposed.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y, people with disabilities, women, deviant sexual behavior, cognition, psychology

게재 신청일 : 2023. 09. 27
수정 제출일 : 2023. 11. 07
게재 확정일 : 2023. 11. 13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First author (sejin86@naver.com)